

# 함평군-中 피두구, 글로벌 동반 성장 구축 맞 올려

경제·문화·축제 분야 시너지 창출  
나비 사육·특화 작목 등 기술 공유  
나비대축제 사천문화 테마존 조성  
실무 협의체·청소년 인적 교류도



함평군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 청두시 피두구에서 열린 '제4회 나비촌 유채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축제·경제·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이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축제, 경제, 농업 등 다방면에 걸친 전방위적 실무 교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동반 성장 체계 구축에 맞물려 왔다.

단순한 우호 결연을 넘어 상시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경제·문화적 시너지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청두시 피두구에서 열린 제4회 나비촌 유채꽃축제 현장을 공식 방문해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확정 짓고 글로벌 협력망을 공고히 다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역 대표 축제를 매개체로 한 문화 교류의 정례화다.

양 지자체는 다음 달 개막하는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에 피두구 전용 테마존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테마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천 요리의 정수인 두반장을 비롯해 다채로운 현지 문화 콘텐츠가 관광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함평나비대축제를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해외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격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농특산품의 해외 시장 진출 보폭도 넓혔다.

군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자체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인 K-HC푸드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안

착을 위해 현지 맞춤형 홍보 및 전시 마케팅을 전개해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밀착 마케팅을 통해 현지 소비 트렌드를 직접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병행해 향후 안정적인 수출 판로와 전용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교류도 속도를 낸다. 함평군의 독보적인 나비 사육 기술과 우수 국화 품종 재배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고, 피두구의 유채꽃 등 특화 작목 재배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 농업 협력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양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글로벌 교환 학습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번 협의 사항들이 선연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양 지자체 실무진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정례화된 교류 시스템을 통해 합의된 사업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 실행력을 완벽하게 담보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중국 피두구와의 전방위적 실질 교류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세계 명품 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상시 협의체를 통해 축제는 물론 경제, 농업 등 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함평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 완도군, '힐링해 프로젝트' 밑그림 완성

102억원 투입 해양치유 복합 단지  
캠핑장·명소 거리 등 인프라 확충  
상반기 실시설계 거쳐 하반기 착공



힐링(산토리니) 풀하우스 신축, 테마가 접목된 캠핑 공간인 힐링 텀핑장, 특색 있는 힐링 명소 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시설물 건립을 넘어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 운영을 결합한 복합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앞서 군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 중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힐링 풀하우스

스 건축 및 토목 공사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까지 주요 하드웨어 조성을 마치고, 2028년에는 힐링 공간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완도만의 독창적인 해양치유 관광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설 인프라와 체험 콘텐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국내 최고의 치유 명소로 자리잡기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체류형 힐링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힐링해(Healing海) 완도 프로젝트'의 세부 청사진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 일원에 관광객의 치유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편의 시설과 체험 콘텐츠를 집적화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4년 전남도 지역 성장 전략 사업 공모 선정에 마중물 삼아 도비 50억원과 군비 50억원 등 총 1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신지면 명사십리 제1주차장 일원과 해양치유센터 주변 구역을 힐링 거점으로 집중 개발한다.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 "영암에서 3개월간 체류형 귀농 체험 하세요"

郡, 20일까지 3기 참가자 모집  
농촌 생활·지역 공동체 등 경험

영암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지역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영암살래'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암살래는 군서면 모정마을에 조성된 5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에 머물며 농촌 생활과 지역 공동체를 직접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앞서 1-2기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았

으나 1개월의 거주 기간이 짧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3기 프로그램의 체류 기간을 3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3기 운영은 오는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체류 기간 동안 마을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 동네 작가 활동, 농촌 체험,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채로운 밀착형 활동을 수행하며,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확정·통보된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올해는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와 6개월 살아보기 등 체류 기간을 다양화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해남군,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선정 항산농협 등 4곳...내달 현장 투입

해남군이 농어업 분야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나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3-8개월간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단기 파견하는 제도다.

농업 분야에서는 올해 공공형 사업에 항산·명골·문내농협 등 3개소가 선정돼 100명의 근로자가 다음 달 중 배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사업에 육천농협(20명)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120명의 인력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어업 분야 역시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군은 지난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투입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전 관리와 어가 배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현장에 언어 소통 도우미를 배치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진료비용을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해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조성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대거 도입으로 심각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근로자와 고용 농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영광 광풍마라톤 22일 개최...주요 도로 통제

전국서 6천여명 대규모 참가

영광에서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려 지역 주요 도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11일 영광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제2회 영광 광풍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대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10㎞와 하프 코스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광주에서 법성·홍농 방면 상행선 2차선은 중산교차로부터 차선이 점차 축소돼 신평교차로에서는 전면 통제된다.

5km 코스 역시 오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

지 스포티움 회전교차로에서 단주리를 거쳐 대일농약사 앞까지 전 차선이 차단된다.

다불어 스포티움에서 단주리 회전교차로 구간은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도 22호선 통제 구간 진입 차량은 원불교 영산성지나 국민여가캠핑장 방면으로, 5km 구간 진입 차량은 인근 종합병원이나 고추시장 방면 등으로 각각 우회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6천여명이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우회로 이용과 통제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무안군, 걷기 중심 생태도시 조성 박차

130km 규모 오강 삼백리길 구축  
읍·면 특화 테마 코스·41개 노선

무안군은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위커블시티(Walkable City)'의 세부 밑그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걷기 중심 생태 도시 조성에 나섰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항실에서 김산 군수와 실과단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위커블시티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스터플랜은 '무안의 이야기를 따라 한 바퀴로 연결되는 위커블 구경길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무안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노선인 '무안 오강 삼백리길' 조성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오강 삼백리길은 무안 중단 산악길, 흥통해안둘레길, 강·산·해 연결길 등 총 5개 노선 130km 규모로 구축된다.

이중 영산강과 승달산, 톱머리를 잇는 강·산·해 연결길 22km와 승달산 종단길 28km는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대

표 보행 코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내 9개 읍·면의 지역별 특색을 심분 살린 테마형 보행 코스도 마련됐다.

무안 행복거리, 천계 누리길, 해제 바다경관길 등 총 41개 노선 311.8km 규모의 걷기 길을 개척해 지역 내 거점을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거대한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외 함께 보행망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도 속도를 낸다. 황토웰니스파크, 남산 풍경누리길, 대죽도 야간경관, 월선 아트 위커블 빌리지, 노을길 감성로드 등 지역 9대 명소를 보행로와 직접 연결해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군은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포토스팟 조성, 스탬프포인트, 위커블 택배 연계 서비스 등 다채로운 활성화 콘텐츠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기본계획을 든든한 주춧돌 삼아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보행 친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2023년 '위커블시티 무안'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책로 걷기와 남야 탐방이 대표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며 걷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